

“가섭불은 까까머리”... 구업으로 부처님 6년 고행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49)

대사 아들 대만과 웅기장이 호의 이야기

가섭불 당시 이야기다. 옛날 다수읍에 어는 바라문이 있었다. 그는 왕의 태사로 나라 안에서 첫째였다. 그에게는 대만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용모가 수려했다. 그리고 호희라는 한 웅기장이 있었다. 대만과는 어릴 적부터 친한 사이여서 마음으로 서로가 공경하며 생각하는 터였다. 웅기장은 정진이 용맹스러웠고 인자하고 효성스러워 그의 부모가 모두 장님이었으나 공양에 모자람이 없었다. 웅기장이이기는 하였으나 일부러 땅을 파지 않았고 허물어진 담장이나 무너진 언덕의 흙만으로 그릇을 만들었다. 만약 그릇을 사겠다는 이가 있으면 보리, 깨, 콩 등의 곡식만 받고 그릇을 팔았으며, 애초부터 값을 흥정하지 않았을 뿐더러 금과 은, 재물과 비단들은 받지 않았고 곡식만을 가져다 공양할 뿐이었다.

가섭불께서 계신 정사는 다수읍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 함께 하는 큰 비구는 2만 명이었으나 모두가 아라한이었다. 호희는 대만에게 말했다.

“함께 가섭불을 가 봅자.”

대만이 대답했다.

“그 도인을 보아서 무엇 하겠느냐? 그는 까까머리인 사람일뿐이다. 무슨 도가 있겠느냐?”

호희가 다시 말했다.

“부처님의 도는 얻기 어렵다.”

호희는 대만이 뜻이 없어보이자 다시 대만에게 말했다.

“함께 물가로 가서 목욕이나 하자.”

둘은 함께 물가로 가서 목욕을 하다가 호희가 멀리 가리키며 말했다.

“가섭불의 정사는 여기서 멀지 않다. 잠시 함께 가 봅자.”

대만은 대답했다.

“그를 봐서 무엇 하겠느냐?”

그때 호희는 갑자기 대만의 옷자락을 붙잡아 끌었다. 그러자 대만은 옷을 벗어 버리고 도망가려 했다. 호희는 도망가는 대만의 머리를 붙잡아 끌면서 말했다.

“함께 부처님을 뵈러 갔다 오자.”

그 때의 풍속에 남의 머리를 붙잡는 것을 꺼려 목을 베는 법이 있었다. 대만은 놀라고 두려워 말했다.

“웅기장이야, 죽을 것을 알면서 내 머리를 붙잡느냐?”

호희는 말했다.

“나는 죽는다. 그러나 죽더라도 반드시 내가 부처님을 뵈게 하겠다.”

대만이 생각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있겠구나. 이 사람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붙잡으니 말이다.’

대만이 말했다.

“나의 머리를 놓아라. 너를 따라가겠다.”

머리를 고쳐 묶고 옷을 입고 함께 부처님을 찾아

갔다. 그리고 호희는 말씀드렸다.

“여기 대만은 바로 저와는 어릴 적부터 친한 벗입니다. 그러나 그는 부처님의 법과 삼보를 알지 못하니 세존께서 깨우쳐 주십시오.”

대만은 부처님의 상호를 보고서 생각했다.

‘경서 기록에 실려 있는 상호가 모두 있으나 두 가지 일만이 없구나.’

이때 부처님께서는 이내 넓고 긴 혀를 내어 얼굴 위를 덮고 살상투를 덮고 두 귀를 일곱 번 스치면서 머리를 활아 혀를 으르려 입으로 들어가게 했다. 그러자 광명이 나와 대천세계를 비추며 해와 달의 광명을 가리고 아가니타천까지 이른 뒤에 돌아와서 몸을 일곱 바퀴 돌고 정수리 위로 들어갔으며, 신족의 힘으로 음마장을 나타내어 대만 혼자만 보게 하고 다른 사람은 보지 않게 했다.

대만은 완전한 부처님의 서른두 가지 모습을 보고서 뿔 듯이 기뻐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부처

님께서는 대만을 위하여 보살이 공덕을 끊는 경우를 말씀하셨다.

“무엇이 보살의 공덕을 끊는 것인가? 몸으로 행하지 않아야 할 것을 행하고, 입으로 말하지 않아야 할 것을 말하고, 뜻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할 것을 생각하는, 이것이 보살로서의 세 가지 나쁜 행이다.”

이에 대만은 나아가 부처님의 발에 예배하고 말했다.

“제가 이제 참회하고 이제부터 다시는 그와 같은 행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대만의 참회를 받아주셨다. 대만과 호희는 함께 부처님께 예배하고 돌아갔다.

대만이 말했다.

“너야말로 어리석고 어리석다. 그토록 좋은 법을 알았으면서 어찌 그렇게 살고 있느냐? 나는 너의

얼굴조차 보기 싫고 너의 이름조차 듣기도 싫다.”

호희가 말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대만이 대답했다.

“나는 일찍이 부처님으로부터 깊은 법을 들었으면서도 어찌해서 출가하지 않았느냐?”

호희는 대답했다.

“나의 부모님은 늙으셨고 게다가 모두 장님이시다. 양친을 공양하면서 어떻게 출가하겠느냐? 만약 내가 출가하면 부모님은 바로 돌아가실 것이다. 이 때문에 출가하지 못했을 뿐이다.”

대만이 호희에게 말했다.

“나는 부처님으로부터 보살이 행하는 세 가지 나쁜 행을 들었다. 나는 이제 집에 있기가 싫구나. 나는 지금 부처님을 찾아가 출가하고자 한다.”

호희는 말했다.

“장하다, 대만아. 생각하는 힘을 얻었느냐? 지



삼화·강병호

금이야말로 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부처님 세상은 만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만은 이내 호희에게 합장하고 용서를 빌었다.

“내가 만일 몸과 입과 뜻으로 너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면 용서하여라. 너야말로 바르고 참된 큰 도를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대만은 구족계를 받고 비구가 되었다.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대만이 지금의 나의 몸이요 대만의 아버지는 바로 지금의 부왕이시다. 호희는 자주 나의 출가를 권했으므로 도를 닦게 한 좋은 벗이었다. 내가 전생에 호희에게 나쁜 말로 ‘가섭불은 까까머리 사문이다.’ 고 말했다 때문에 6년 동안 하루에 한 톨의 깨와 한 날의 쌀을 먹게 된 것이며, 콩과 팥도 그러했다.”(《흥기행경》 하군에 나온다.)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문이상)에서 발행 재구성

구성=박재원 기자 wanihollo@hyunbul.co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49



오래 걸린 참회

초등학교 동창회

오늘은 초등학교 동창회 모임 날이었다. 부북국민학교 28회 동창들의 모임이다. 결성 된 지 얼마 안 된 동창회는 일 년에 두 번 모임을 갖고 있다. 오랜 만에 다시 동창들을 만나니 반가웠다.

우리가 학교에 다니던 그 시절에는 반이 한 반뿐이어서 한 교실에서 6년을 공부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동창생들은 각처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 직전 회장은 운송업으로 성공했으며, 하우스 농사로 성공한 사람도 있고, 과수원을 하는 사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왔고 살고 있었다. 모두 큰 어려움 없이 노후를 맞고 있는 동창생들을 보니 다행스럽고 고맷했다. 그리고 동창생 중에 운명을 달리한 동창들도 있었다.

전 회장은 선물로 준비해 온 책과 타일을 나눠주었다. 책은 철수를 기념하여 만든 것으로 그동안 살아오면서 느끼는 삶의 지침과 선인들의 글에서 귀감이 될 만한 글들을 모아 만든 것이었다. 우리는 모두 부러운 마음과 축하의 마음으로 박수를 보냈다.

시골에 살고 있는 한 친구는 손수 도토리를 주워 모아 도토리묵을 만들어왔고, 또 한 친구는 손수 닭군 매실차를 가져왔다. 과수원을 하는 친구는 배를 가져왔다. 훈훈한 인심을 나누면서 동창회를 만들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분위가 무르익자 동창들은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을 하나씩 기억이 나는 대로 꺼내기 시작했다. 몰랐던 누군가의 첫사랑 이야기 등 학교 다닐 때는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나왔다. 우리들은 어린 시절로 돌아가 오랜만에 동심으로 젖었다.

그때는 지금처럼 아이들이 놀 것이 별로 없었던 시절이었다. 여자 아이들은 운동장이나 골목에서 고무줄뛰기나 발로 돌을 차는 말치기 같은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짓곳은 남자 아이들이 고무줄을 꿰고 달아나기도 했고, 돌을 차고 여학생들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달아나기도 했다. 짓곳은 남자 아이들의 장난에 여자 아이들은 부끄러워 울곤 했었다. 이제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련한 추억이 되었다.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다.

나는 나보다 세 살 위의 오빠와 함께 학교에 다녔다. 나는 선배인 오빠에게 말해 장난치는 남자 아이들을 혼내주곤 했다. 그리고 나면 아이들은 감히 나에게 함부로 장난을 치지 못했다. 그때 그 친구들과 마주 앉아 그때 일을 이야기하니 세월이 새로웠다.

배려심이 깊고 인심 좋은 전 회장은 무상보시를 실천하는 보살이다. 모임 때마다 모든 경비를 혼자 책임지려 해서 동창들이 안 될 일이라며 말리곤 한다. 그러면 그때마다 회장은 “나는 작으나마 나의 수입에서 한 부분만은 우리 동창들에게 쓰기로 서원했으니 미안하게 생각 할 필요가 없다.” 했다. 불자로서 고개가 숙여지지 않을 수 없었다.

고등학교 교장을 지낸 지금의 회장은 “우리가 부모님의 뱃속에서 열 달 밖에 살지 않았지만 한 교실

에서 6년을 함께 지낸 우리는 보통의 인연이 아니지 않느냐?”며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여생동안 좀 더 열심히 만나고 사랑하는 모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만나는 이 순간만은 초등학교 그 시절로 돌아가 노래를 부르자며 ‘학교종이 멍멍’, ‘나의 살던 고향은’ 등 어릴 적 불렀던 동요를 함께 부르면서 눈물을 글썽거리기도 했다.

고향엔 그렇게 그림고 고마운 추억들이 있었다. 비록 모습은 할배들이지만 어린 시절의 그 음성을 지금 이렇게 마주 앉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고맷게 그지 없었다.

우리는 내년 봄에 해인사로 나들이를 가기로 약속하고 동창회를 마무리 했다.

그리고 나는 오늘 나선 길에 꼭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었다. 그리 멀지 않은 동네에서 나는 동창회가 끝나고 과일 한 상자와 작은 성의를 준비하여 물어 물어 그 집을 찾아 갔다. 대문을 들어섰을 때였다. 십대 중반에 보았던 그 소년은 팔순 노인이 되어 있었다.

60년 만에 만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몰라 볼 정도의 모습으로 변했지만 기억이 옛날을 기억해내자 우리는 두 손을 꼭 잡고 반가워했다. 정말 만나고 싶었고 보고 싶었던 사람이었다.

내가 어렸을 적에 철이 없어 마음을 상하게 했을 것 같아 한번은 꼭 용서를 빌고 싶었던 사람이다.

그때 농사를 꽤 크게 지었던 우리 집에는 집식구 외에 농사일을 돕는 어른 일꾼 두 사람과 열 살 정도의 아이 일꾼이 있었다.

나의 엄마는 오빠와 비슷한 그 아이를 자식 같이 생각했다. 그래서 엄마는 그 아이가 우리와 한 상에 밥을 먹게 했는데, 그때마다 나는 짜증을 내며 싫어했고 묻는 말에 대답도 잘 하지 않았고 눈을 흘기고 입도 삐죽거리곤 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다. 그랬던 일들이 나이가 들어 철이 들고 인과를 알게 되면서부터 후회했고, 마음속으로 참회하며 살았다.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만나 사과를 하고 싶었고 우리 집 일을 도와준 고마움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었는데, 오늘에야 만나게 되었다. 나는 어렵게 입을 폈다. “그때는 내가 어리고 철이 없어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마음 상했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는 “무슨 그런 말을...” 하면서 “찾아 주어 고맙다.”고 했다.

그리고 큰 걱정은 없어 보여 마음이 놓였다. 다음 봄에 부산에 꼭 한번 다녀가 달라고 부탁을 하고 돌아왔다. 그래도 그 동안 내가 지었던 과오가 하루아침에 말끔히 지워지지 않아 마음 한쪽이 여전히 묵직했다.

그래도 오늘, 나는 내게 스스로 칭찬하고 싶다. 그토록 미안한 마음을 전해야 했던 사람을 찾아 용서를 빌었으니 금생의 작은 속제를 해낸 것 만 같다. 오늘은 참 좋은 날, 보람 있는 날이었다.

부산 연꽃모임회장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사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연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올먼 고당리 473-2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식

주문은 **현불상!**
02)2004-8216

동점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더라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리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기반방식 내부

